

주요어 : 돌봄의 윤리, 간호윤리, 여성적 윤리, 자율성

간호에서의 여성적 윤리에 대한 비판적 탐구

공 병 혜*

I. 서 론

간호윤리학은 일반적으로 “간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윤리적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정의는 곧 간호란 무엇인가라는 간호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에 따른 간호라는 고유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간호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학자마다 그 입장을 달리 해왔지만, 대부분의 간호학자들은 돌봄이라고 규정짓는 데에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이렇듯 간호에 있어서 돌봄은 간호의 본질을 규정짓는 존재론적 특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특성이기도 하다(Morse, 1990). 왜냐하면 돌봄은 바로 간호사와 간호대상자라는 인간관계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가치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즉 돌봄은 환자의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염려와 관심에서 비롯된 공감이나 연민, 친밀감이라는 도덕적 감정을 동반한다. 더 나아가 주의 깊은 경청, 환자에 대한 옹호와 교육, 함께 있기, 접촉 등은 이러한 돌봄의 속성으로부터 발전된 전문화된 간호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Morse, 1990). 특히 Forrest(1989)는 간호에서의 돌봄의 윤리적 가치는 간호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있으며, 환자를 위해 함께 있는 것, 환자를 존중하는 것, 환자와 친밀해지는 것 등으로 특징짓고 있다. 이러한 간호에서 돌봄은 옹호, 책임, 협동과 더불어 간호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도덕적 사고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인 것이다(Kim & Lee, 1997).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언급된 간호에서의 돌봄의 도덕적 특성이 지닌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윤리 이론이 과연 무엇인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간호에 있어서 돌봄의 도덕적 의미는 상처받을 가능성에 놓인 환자의 간호요구와 만나서 이루어지는 상호 관계성과 그리고 책임에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돌봄의 도덕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윤리이론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간호에 적합하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돌봄의 도덕적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이론 중에서는 특히 간호윤리학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70년대 이후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돌봄의 윤리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학자인 Tong(1997)은 여성주의자들의 돌봄의 윤리를 도덕적 규범과 원칙을 제시해 주는 전통적인 원칙주의 윤리와 구분해서 도덕적 자질, 품성에 대한 이론으로서의 덕 윤리에 포함시키고 있다. 거기서 특히 길리간과 노딩스를 대표로 하는 돌봄의 윤리를 여성적 윤리(feminine ethics)라고 칭해진다. 왜냐하면 여성적 윤리는 여성고유의 자질과 체험을 도덕적 장점으로 삼아 구성된 윤리이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적 윤리는 사회적으로 강요된 여성적 덕성으로부터 벗어나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와 평등을 주장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윤리(feminist ethics)와도 구분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우선 간호에서의 돌봄의 윤리적 특성이 지닌 의미를 고찰해 보고, 간호윤리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여성주의자들의 돌봄의 윤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한다. 왜냐하면 여성적 윤리가 간호에서의 돌봄의 윤리적 의미와 가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윤리이론에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적 윤리가 간호윤리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고찰하여 보고 그리고 그 적용한계가 과연 무엇인지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여성적 돌봄의 윤리가 지니는 간호에서의 실천적 한계를 극복하고 간호사 개인과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돌봄의 자율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간호윤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

1. 간호에서 돌봄의 윤리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여 본다.
2. 여성적 돌봄의 윤리적 특성에 대해 탐구하여 본다.
3. 여성적 돌봄의 간호 윤리적 적용과 그 한계에 대해 비판하여 본다.
4. 간호사의 자율성이 실현될 수 돌봄의 윤리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여 본다.

II. 간호에서의 돌봄의 윤리적 의미

간호철학자인 Edward(2001)는 간호에서의 돌봄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특징짓고 있다; 첫 번째로 간호에서의 돌봄은 의도적(intentional)인 것이며, 이것은 환자에 대한 신중한 관찰을 통해 그 환자가 어떤 요구를 지닌다는 믿음과 더불어 그를 돕고자하는 소망을 지닌 행위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돌봄 행위는 관계적(relational)이다. 즉 돌봄의 행위는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며, 돌봄의 관계는 돌보는 자인 간호사 자신의 관심보다 타자에 대한 관심(concern)과 타자의 요구(need)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돌봄의 행위는 항상 타자에 대한 관심과 타자의 요구와의 만남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간호에 있어서 타자의 요구와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은 상처받을 가능성(human vulnerability)을 지니며, 고통을 느끼는(suffering) 육체를 지닌 존재라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 세계의 한 가운데에 놓여져서 이 세계를 경험하면서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자신의 방식에 따라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 방식은 건강을 돌보는 간호행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전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건강을 돌보는 행위는 바로 아픔(pain)과 고통을 느끼는(suffering) 환자에 대한 요구를 이해하여 이에 대한 응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에 있어서 돌봄은 바로 고통을 느끼는 환자에 대한 응답이며, 이러한 응답은 그 자체가 도덕적 기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Edwards, 2001).

이렇듯 간호에서 돌봄의 행위는 고통을 느끼고 상처받을 가능성에 놓여 있는 환자의 요구와의 만남을 통해 이에 응답하는 도덕적 관점을 지니며, 이것은 결국 환자를 위해 선행을 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선행으로서의 돌봄은 우선적으로 인간이 상처받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환자 자신의 관점에 의해 환자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간호에 있어서의 돌봄은 자연적인 돌봄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환자

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환자 자신의 고통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고 고통의 체현에 대한 이야기(narrative)를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 이렇듯 간호대상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 응답으로서의 간호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간호학자인 Benner와 Wrubel(1989)은 항상 간호사가 환자가 가장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환자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때의 돌봄을 환자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주는 돌봄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바로 환자의 관점에서 환자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의도적 돌봄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간호의 돌봄에 있어서의 공감이나 연민이라는 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Nortvedt, 1998). 공감이나 연민은 환자의 요구에 응답하려는 도덕적 힘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이해하는 적극적인 정서적 참여의 감정이다. (Edward, 2001) 공감은 '근심 속에 있는 타자와 함께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이며, 고통받는 환자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한 돌봄의 정서적 도덕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간호에 있어서의 돌봄의 의미는 바로 상처받을 가능성을 지닌 고통받는(suffering) 환자의 요구와 만나는 정서적 참여의 과정을 통한 도덕적 응답(moral response)에 있는 것이다.

III. 여성적 돌봄의 윤리적 특성

위에서 살펴본 간호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 돌봄의 도덕적 정서적 특성은 인간의 도덕적 성품과 자질, 도덕적 감응능력 등을 중요시하는 덕 윤리(ethics of virtue)나 70년대 80년대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돌봄의 윤리에 의해서 이론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간호윤리학자들을 돌봄의 도덕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근거 짓는 데에 특히 길리간(Gilligan)이나 노딩스(Noddings)의 돌봄의 이론에 의존한다. 그러면 우선 덕 윤리에 대한 일반적 관점과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돌봄의 윤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덕 윤리는 특히 인간의 자유의지와 실천이성의 계발에 기초를 둔 칸트의 도덕법칙에 대한 절대적 의무주의와 로스(Ross)의 조건부적인 의무론, 칸트의 도덕철학에 근거한 롤즈(Rawls)의 정의론, 그리고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행위의 결과에 따른 삶의 유용성의 원칙에 두는 공리주의와는 대조를 이루는 윤리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원칙주의에 근거한 도덕이론에서는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에 근거하여 개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회적 정의에 대한 도덕적 원칙에 따라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덕 윤리에서는 개인의 행위의 동기를 가능하게 하는 인격, 혹은 마음의 성향, 습관, 성질, 품성이라는 덕목이 중요시된다. 덕 윤리에서는 도덕적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향이나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성찰에 의해서 상이한 윤리적 내용이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칸트의 의무론적 도덕관에 영향을 입은 프랑케나는 정의나 선행의 원칙에 따라 행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직이나 성실과 같은 성품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은 오히려 도덕적 삶에서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한다(Frankena, 1996). 그러나 반대로 덕 윤리학자인 Blum(1980)에 따르면 돌봄의 정서는 인간의 도덕성의 핵심을 이루는 덕목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적 삶을 위해 동정심이나 감정어입, 그리고 이타적인 인간에 대한 관심, 연민, 우애가 필연적인 것이다. 특히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구성된 덕목들인 실천적 지혜나 중용에 덧붙여서 돌보는 사람은 실제로 돌보는 대상과 관계하고 있다는 감정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감정 그 자체가 자주 행위를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하거나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행위로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다(Blum, 1980). Blum에게서 인간의 도덕적 성장은 동정심, 돌봄, 관심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지닌 인격체로 성숙하는 것을 의미한다(Tong, 1998).

그러나 특히 간호윤리학자들에 의해 이론적 지지를 받고 있는 현대의 도덕 이론은 Gilligan(Gilligan)과 Noddings(Noddings)의 여성적 돌봄의 윤리(feminine ethics of care)이다. 여성주의에 속한 돌봄의 윤리학자들은 기존의 전통적 윤리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이 여성의 도덕적 사고와 판단 그리고 행위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돌봄의 윤리학자들은 기존의 도덕이론의 중심인 칸트(Kant)의 의무론적 윤리와 롤즈(Rawls)의 사회 정의론과 이들과 같은 맥락에 속한 콜버그(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에 대해 비판을 한다. 왜냐하면 칸트에서 있어서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법칙은 인간의 개인적 경험과 특수상황을 초월하며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의무론적 법칙이며, 롤즈의 정의의 원칙도 역시 상황을 초월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초개인적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심리학자인 콜버그는 바로 칸트의 도덕이론을 계승하여 경험적으로 실험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정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도덕발달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여성주의에서의 돌봄의 이론은 바로 Gilligan의 여성의 도덕발달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부터 비롯된다. 거기서 Gilligan은 여성의 도덕판단에 있어서 콜버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의의 원칙과 같은 추상적 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재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돌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길리간의 연구이후에 노딩스에 의해서 여성주의 윤리이론으로서 돌봄의 윤리가 개념화되었다. 노딩스는 돌봄의 의미, 기제, 양태 등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정교하게 시도하였다. 이러한 돌봄의 윤리는 기존의 원칙주의적인 정의의 윤리와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 정의의 윤리는 추상적 접근을 지니는 반면에, 돌봄의 윤리는 구체적인 삶의 맥락적인 접근을 지닌다.
2. 정의의 윤리는 인간 개별자로부터 출발하는 반면, 돌봄의 윤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3. 정의의 윤리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지만, 돌봄의 윤리는 공동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4. 정의의 윤리는 옳은 행위를 수행함에 이성의 활동(판단, 결정)이 중요하지만, 돌봄의 윤리는 훌륭한 성품을 구성하는 데에서의 감정과 정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5. 정의의 윤리는 자율성과 독립성, 이성적 판단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반면에 돌봄의 윤리는 관계성, 친밀성, 감성적 판단에 의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Tong, 1998).

우선 길리간(1982)의 돌봄의 윤리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길리간에 따르면 “여성들의 도덕적 경험에 있어서 도덕적 문제의 발생은 간 개인의 권리가 충돌해서가 아니라, 책임들이 충돌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맥락적이며 이야기체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한다(Gilligan, 1982). 길리간이 비판한 콜버그의 정의론에 기초한 도덕관은 일종의 공정성(fairness)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도덕관은 권리와 규칙에 대한 이해를 하여 정의의 실현을 향한 도덕발달을 중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돌봄의 활동과 관련된 도덕관은 바로 책임과 인간관계에 대한 도덕발달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Gilligan, 1982). 즉 여성의 삶에 있어서 돌봄은 자신과 타인의 복지를 고려하는 것인데 도덕적 성숙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자신만을 고려하다가 타인과의 관계성을 의식한 다음부터는 차츰 타인에 대한 고려와 이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돌봄의 윤리의 출발점은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라는 도덕적 성숙과정을 통해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길리간에 있어서의 도덕적 성숙의 최고의 단계는 결국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자율적인 선택적인 원리로서의 돌봄의 원리를 채택하는 단계인 것이다. 이 단계가 여성

의 도덕적 자아의 성숙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Gilligan, 1982).

이러한 길리간의 돌봄의 윤리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공감능력의 성숙을 통한 타자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돌봄의 윤리의 기초인 것이다. 거기서 돌봄의 윤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나 자신에 대한 권리와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두 가지의 조화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돌봄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 대해 똑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돌봄의 양과 질의 차이를 두는 형평성을 전제로 한다. 즉 칸트나 롤즈의 이론에서처럼 개인과 상황의 차이를 무시한 절대적 평등의 개념은 없는 것이다. 길리간에 따르면 권리의 도덕에서 중요한 것은 평등의 개념이기 때문에 공정성(fairness)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책임의 윤리에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차이를 두는 형평성(equity)이란 개념이 중요하다. 즉 평등(equality)이나 공정성의 개념은 형식적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파이를 먹고자 한 사람의 수대로 정확히 등분하여 파이를 분배하면 그것은 공정한 분배이다. 그러나 형평성은 파이를 먹으려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고려한다. 즉 며칠 굶어서 허기진 상태에 있는 사람과 단지 디저트로 파이를 먹고자 하는 사람의 필요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Gilligan, 1982).

이렇듯 길리간은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공감능력, 책임감, 형평성 등의 개념을 통해 여성의 윤리적 성숙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Noddings(1984)는 돌봄의 내적인 성격을 밝혀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돌봄의 내적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수용하면서 타인과 함께 보고, 느끼며,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Noddings, 1984). 노딩스가 함께 느낌으로써 타자를 수용하는 것은 타자의 현실을 감지하는 것이며, 거기서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타자의 인격성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만나느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우리는 타인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타인이 무엇을 기대하고 그녀의 기대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에 대해 인식한 후에야 비로소 돌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윤리는 매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딩스의 이론의 기본적 토대는 바로 인간 모두 선천적으로 돌봄의 충동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녀에게서 돌봄의 도덕적 원천은 감성적 본성으로서의 인간상호간에 느끼는 자연적인 공감이며, 이것은 나 자신을 타인과의 정서적인 과정에 몰입하게 하는 자연적 충동인 것이다(Noddings, 1984). 따라서 이러한 노딩스의 인간의 돌봄에 대한 윤리에서는 사랑

(eros)과 여성적인 정신이 중요하다. 에로스는 수용성, 관계성, 책임성에 근거하며, 이것은 로고스(logos)보다 더욱 기본적인 윤리적 행위를 위한 윤리적인 인격체의 형성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특히 노딩스의 돌봄의 윤리는 흄(Hume)의 윤리에서 보여주는 도덕적 감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공감, 동정심 등의 개발이 일상 삶에서의 도덕적 결정과 행위를 인도하게 된다(Tong, 1998).

여기서 노딩스는 자연적인 돌봄(natural caring)과 윤리적 돌봄(ethical caring) 간의 관계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연적 돌봄은 인간의 전 도덕적인 선(premoral good)이다(Noddings, 1984). 자연적 돌봄의 초기의 경험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자하는 자연스런 감정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연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관계의 형성이 곧 근원적인 인간 삶의 조건이며, 돌봄에 대한 갈망은 인간을 도덕적이게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그 이후의 도덕적 행위는 감정과 정서에 의한 자연스런 돌봄보다는 당위적 성격을 지닌 윤리적 돌봄으로 나아가며, 자연적 돌봄보다 훨씬 더 신중한 숙고가 요구된다. 여기서 자연적인 돌봄에서 윤리적 돌봄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도덕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덕적 당위는 도덕적 성숙과정에서 곧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이 된다. “윤리적인 것은 돌보는 자세를 유지하고 추구하려는 돌봄에 기초하며, 따라서 이것은 자연적 돌봄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적 돌봄에 의존하는 것이다.”(Noddings, 1984) 노딩스는 윤리적인 돌봄에서 우리자신의 고유한 관심이 타자를 긍정, 수용하기 위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초적인 자연스런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행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연적 돌봄의 성향을 실현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도덕적이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인 것이다.

노딩스는 이러한 돌봄의 실제적 실천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모성(mothering)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그녀의 돌봄의 이론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녀에 따르면 모성은 인간 삶에 있어서 일상적인 신체적 욕구와 오랜 기간의 정서적 지성적 발전과 관계하여 실제적인 돌봄의 실천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성찰로부터 제외되어왔다는 것이다. 모성은 가장 최초의 기본적인 인간 관계의 경험이 형성되는 출발지점이며,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격체로 되어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사고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다. 따라서 돌봄의 이론은 인간의 본성의 특별한 개념에 근거하기보다는 모성이라는 근원적인 인간 관계로부터 탐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딩스는 모성의 실천에 대한 탐구를 하고 이에 요구되는 성격적

특성과 지적인 기술을 결정함으로써 돌봄의 내용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Groenhout, 1988). 이러한 모성에 기초한 돌봄의 3가지 성격적 특성은 이타주의, 동정심, 사회성이며, 이것은 돌보는 사람이 인격적 발전을 위한 배려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건강한 모성은 개별자의 각각의 상황을 중요시하며 공감적 참여를 통해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읽어내는 상호성(mutuality)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돌봄의 상호 호혜적 특성은 바로 돌봄이 타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혹은 간호사가 일방적으로 베풀다고 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돌봄의 완성은 타인 속에서만 가능하며 돌봄의 윤리가 참으로 실행된다는 것은 돌봄을 받는 자가 돌봄을 인지하고 수용(apprehension)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돌보는 자가 돌봄을 받는 자 속에 들어온다는 의미에서의 몰입(engrossment)이 요구되며,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과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동기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길리간과 노딩스의 여성적 돌봄의 윤리에 대해서 고찰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적 윤리가 과연 간호에 있어서의 돌봄의 도덕적 측면을 지지해 주기에 합당한 이론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IV. 간호에서의 여성적 돌봄의 윤리에 대한 비판

지금까지 덕 윤리라는 관점에서 길리간과 노딩스에 의해 부각된 여성적 돌봄의 윤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여성적 돌봄의 윤리는 간호윤리와 연관성 하에서 다음과 같이 지지되고 있다. 돌봄이 간호실무에서 지니는 도덕적 의미는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수용하여 그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간호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그들이 지니는 요구와의 만나는 의사소통과정이 중요한 도덕적 영역이라는 것이다. 특히 간호윤리학자인 Fry(1989)는 환자요구를 받아들이는 수용성, 함께 느끼는 공감,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간호행위가 환자에 의해 수용되고 인지되어야 하는 상호성 등을 지적하면서 노딩스의 도덕이론을 간호윤리의 돌봄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켰다. 그리고 Benhabib(1987)는 특히 길리간의 사고가 인간관계 속에서의 의사소통윤리라는 측면에서 간호윤리와 연관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또한 Edward(2001)는 간호에서의 의도적 돌봄은 타자의 고통을 지각하고 그들의 요구를 인지하고 수용하여 응답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딩스의 돌봄의 윤리가 지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성적 윤리가 과연 항상 실제 간호업무와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윤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간호상황에서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상호 호혜적 관계와 공감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간호사는 환자의 총체적인 건강문제에 항상 관심을 갖고 보살피야 하지만, 공감을 통해 타자를 수용하는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간호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 간호, 극심한 정신분열상태의 환자간호, 그리고 수술실에서의 간호행위, 마취간호사의 간호행위 등이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환자에 대한 간호는 돌봄보다는 오히려 그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신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일일 것이다. 또한 모든 환자와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정서적 몰입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극심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환자의 간호에 있어서는 환자의 정서와의 공감이나 몰입이 아니라, 일정한 반성적 거리감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urzer(1993)는 건강관리 전문인들의 도덕적 덕을 공감과 상호성에 기초하는 돌봄에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환자의 총체적인 건강도모를 위한 선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간호사는 도저히 공감과 친밀성이 일어나지 않는 환자에게서조차도 선의를 가지고 환자의 복지를 위해 간호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에서의 돌봄의 원리는 대상자에게 선의를 가지고 전문적 돌봄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성장과 자아실현에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Han 등, 1999).

그리고 또한 길리간과 노딩스에 의해 주장된 돌봄의 윤리는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도덕적 딜레마상황에서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돌봄의 윤리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품성과 태도를 다루는 덕 윤리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Munson(2001)에 따르면 돌봄의 윤리를 의사결정의 모델로 채택하는 경우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별적 상황과 요구를 받아들여서 도덕적 책임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어느 환자를 우선 순위로 간호하여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가? 간호사의 손길은 부족함테 간호요구가 많은 일반병실에서 어떠한 지침에 따라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가? 위의 경우처럼 모든 사람들을 개별적인 인격체로서 만나 돌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아마도 정의의 원칙이나, 선행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Munson, 2001). 즉 덕 윤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돌봄의 윤리는 간호사와 환자와 개별적인 상호관계성을 떠나서 공적인 도덕적 의사결정을 위해 도덕 원칙을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 어려움에 봉착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돌봄의 윤리가 간호윤리로 채택될 때의 또 다른 한계를 Kurt와 Wang(1991)은 간호전문직의 자율성이란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돌봄의 윤리를 간호윤리로 수용할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돌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만을 강조할 뿐 전문적인 간호사의 권리의 측면, 즉 돌봄의 원리와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측면은 간과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물론 길리간의 도덕적 최고의 성숙의 단계로서의 자기 선택적인 돌봄이나, 노딩스의 윤리적 돌봄은 사회적 강요에 의한 자기 희생과 봉사라는 타율적 윤리를 극복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돌봄의 원리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윤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일부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특히 여성의 고유한 성향과 모성적 체험을 도덕적 장점으로서 강조한 노딩스의 돌봄의 윤리가 오히려 바로 가부장적인 사회의 권력체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간호사의 돌봄에 대한 선택적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가부장적인 사회권력 체계 속에서 모성적 체험에 근거한 돌봄의 윤리는 희생과 봉사라는 전통적인 여성의 직업윤리관으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적 도덕이론은 남성을 포함한 모든 간호사의 간호행위의 도덕적 특성과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편이론으로서의 완결성을 지니기는 어렵다. 길리간은 임신중절 등 여성의 체험에 대한 경험적 탐구에 기초하여 여성의 도덕발달이론을 전개시켰다. 따라서 길리간의 이론이 남성을 포함한 모든 간호사들의 돌봄의 도덕적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의 경계를 넘는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에 기초한 이론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딩스는 자연적 돌봄이 도덕생활의 토대이며, 모성은 자연적 돌봄의 최고의 모델이라는 도덕적 관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간호사가 모성이라는 인간관계의 모델에 근거한 윤리관을 지닐 때, 과연 간호사가 개인과 전문직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윤리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성적 돌봄의 모델은 간호의 역사에 있어서 간호가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모성적 본능의 표현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정이나 친족, 종족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시기에서의 돌봄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잡한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서 간호전문직의 중요한 특성은 무엇보다도 간호대상자의 총체적인 간호요구를 파악하여

전문적인 돌봄의 원리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인 것이다. 이러한 간호사의 돌봄의 자율성은 간호사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간호전문직의 자율성이 보건의료체계라는 사회적 관계의 그물 망 속에서 보장될 때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V. 돌봄의 윤리와 간호사의 자율성

지금까지 여성적 돌봄의 윤리를 간호윤리에 보편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간호행위가 항상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공감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다.
2. 간호사가 처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도덕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객관적 지침을 줄 수가 없다.
3. 돌봄의 윤리는 성 차별적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전통적 여성직업의 윤리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를 낳게 한다.
4. 간호전문직의 자율성을 실현해 주는 간호의 보편윤리로서의 완결성을 지니기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여성적 돌봄의 윤리가 간호윤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데 어려움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호행위를 위한 덕 윤리로서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즉 돌봄의 윤리는 간호행위를 위한 기본적인 자질과 성품으로서의 윤리적 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간호사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공감에 기초한 의사소통윤리와 타자를 위한 책임의 윤리에 대한 이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돌봄의 윤리가 모성적 도덕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권리와 자율성이 간과되기 쉽다는 우려는 특히 길리간이 주장한 돌봄의 선택적 자율성이라는 최고의 도덕적 성숙의 단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해소되리라 여겨진다. 길리간은 자기 충족적이며 자기 독립적인 자율성의 개념, 즉 개인의 독자적인 자율성이 아니라,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을 지지한다. 인간관계의 그물 망 속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숙고하여 선택하는 자율성은 돌봄의 윤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돌봄의 윤리가 간호행위에 적용되었을 경우의 자율성은 간호사 개인의 독립적인 자율성이 아니라, 환자와 관계하는 모든 상호존재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스스로 인식하여 돌봄의 원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관계적 자율성인 것이다. 자기 인식을 근간으로 하는 돌봄의 윤리

는 간호사의 자율적 권리와 환자에 대한 책임의식간의 조화로운 평형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철학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노딩스의 윤리이론을 수용하는 경우 물론 간호사의 권리보다는 환자와의 공감적 관계형성이 우선적으로 중요시된다. 그러나 노딩스는 돌봄의 윤리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한 보편윤리로서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그녀는 그러한 과정에서 돌봄의 적용은 자연적 돌봄의 성향이 일어나는 관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타자와의 모든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노딩스는 “윤리적 이상” 그리고 “윤리적 자아”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그녀는 내가 나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타인들이나 내가 혐오하는 사람들과도 보살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의 윤리적 이상을 고취시키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Noddings, 1984). 이것은 자연적 보살핌의 성향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윤리적 돌봄의 성향이다. 윤리적 돌봄의 성향을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에 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자율적 의지는 필수불가결하며, 이러한 강한 의지는 행위자가 돌봄의 윤리를 스스로 선택했을 때 수반되는 것이다(Heo, 1999). 특히 간호사의 자율성은 돌봄의 선택과 상황에 대한 판단과 돌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의 창조성, 절대적 규칙의 거부 등에서 드러나고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딩스의 윤리적 돌봄은 환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감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돌봄을 선택하여 창조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심미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궁극적으로 여성적 돌봄의 윤리는 스스로 선택한 자율적인 원리일 경우에 간호사의 윤리적 이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자율적 선택적 원리로서 돌봄의 윤리가 실제로 간호상황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개인의 자율성 향상과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체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여성적 돌봄의 윤리가 간호의 보편윤리로서 간호현장에서 실천력을 지니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간호사 개개인은 인간관계의 능력으로서 타자에 대한 관심과 공감능력뿐만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도덕적 자율성을 계발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에게서 도덕적 자율성이란 도덕적 판단의 주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주권(sovcreignty over self)’, ‘자기 규제(self governance)’, ‘자기 결정(self determination)’의 능력이다. 즉 “내가 나 자신의 것으로 자각하고 있는 목

적이거나 가치에 비추어 나의 행동을 선택하고 또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때 비로소 나의 행위는 자율적인 것이다”(Jameton, 1984).

2. 간호사 개인의 돌봄에 대한 선택적 자율성이 보건의료체계라는 사회구조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간호전문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와 간호사, 치료와 간호의 종속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나 동등한 권리와 자율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체계내의 불평등한 구조로부터 전문직으로서 간호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될 때, 간호사 개인의 윤리적 이상으로서의 돌봄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간호전문직의 자율성은 독립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종사자, 그리고 돌봄을 받는 대상자와의 총체적 관계 속에서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MacDonald, 2002).
3. 마지막으로 돌봄의 윤리가 간호의 보편적인 이상적인 윤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여성적 특성과 체협에 근거하여 이론을 전개시키기보다는, 모든 인간의 윤리적 자아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고려와 책임 속에서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보편적인 이론적 기반을 지녀야 할 것이다.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간호에서의 돌봄의 도덕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길리간과 노딩스의 여성적 윤리를 비판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었다. 여기서 길리간과 노딩스의 돌봄의 윤리는 공감에 기초한 상호 호혜적 인간관계와 타자에 대한 책임의 윤리로서 간호에서 돌봄의 도덕적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적 돌봄의 윤리가 간호사와 간호대상자와의 상호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간호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과, 그리고 도덕적 성품과 태도를 강조하는 덕 윤리가 지닌 일반적인 한계이기도 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차별적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돌봄을 원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전통적인 여성적 직업윤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길리간과 노딩스의 여성적 윤리가 간호 윤리에서 지니는 중요한 의미는 간호사와 환자와의 돌봄의 관

계를 위한 정서적 태도와 그리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해 응답하는 도덕적 책임의 윤리에 대한 이론을 제공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적 돌봄의 윤리가 모성적 도덕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자율성이 간과되기 쉽다는 우려는 특히 길리간이 주장한 돌봄의 선택적 자율성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길리간의 이론에 따르면 간호사의 최고의 도덕적 성숙의 단계에서 간호사의 자율성과 환자에 대한 책임 사이의 조화로운 평형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간호사 개인의 독립적인 자율성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관계하는 모든 상호의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돌봄의 원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관계적 자율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노딩스는 타자와의 윤리적 돌봄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의 윤리적 이상을 고취하고자하는 자아의 의지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길리간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돌봄과 노딩스의 윤리적 돌봄은 결국 간호사의 자율성이 환자의 관계와 책임의식 속에서 실현되는 이상적인 돌봄의 성숙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여성적 윤리가 이상적인 간호 윤리로서의 실천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즉 간호사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의 향상과 그리고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의 전문직 간호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돌봄의 윤리가 간호의 이상적인 윤리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여성적 특성을 강조한 여성적 시각에 따른 윤리관을 극복하고 모든 인간의 윤리적 자아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지녀야 하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Benhabib, S. (1987). The generalized and the concrete other. The Kohlberg-Gilligan controversy and moral theory. In Kittay, E. F. Meyers. D. T. (Eds.), *Women and moral theory*(pp.154-177), Totowa, N.J: Rowman & Littlefield.
- Benner, P. & Wrubel, J. (1989). *The Primacy of Caring, Stress and Coping in Health and Illness*, Menlo Park, CA: Addison-Wesley.
- Blum, A. (1980). *Friendship, Altruism and Morali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Edwards, S. D. (2001). *Philosophy of Nursing*, New York: palgrave.
- Frankena, W. K.(translated by Hwang, K. S.) (1997). *Ethics*, Seoul: Jongro.
- Fry, S. T. (1989). *Toward a theory of nursing ethics*, *Adv Nurs Sci*. 11(3), 9-22.
- Gilligan, D.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translated by Heo, R. J. (1994) Seoul: philosophy and reality.
- Groenhout, R. (1988). Care Theory and the Ideal of neutrality in public moral discourse, *J Med Philos* 23(2). 170-189.
- Han, S. K. et al. (1999). *Nursing Ethics*, Seoul: The Korean Nurse Association.
- Heo, R. J. (2000). Feminism and autonomy. In Kim, H. S. (Eds.) *Women and philosophy*(pp.31-49) Seoul: Philosophy and reality.
- Jameton A. (1984). *Nursing Practice: The Ethical Issues*. New Jersey : Prentice-Hall.
- Kim, M. I. & Lee, W. H. (1997). *Ethics in nursing practice*, Seoul: Hyenmunsa.
- Kurtz, R. J. & Wang, J. (1991). The caring ethics: more than kindness, the core of science, *Nursing Forum*, 26(4) 4-8.
- MacDonald, C. (2002). Nurse Autonomy as Relational, *Nursing Ethics* 9(2). 194-201.
- Morse, J. M. (1990). Concepts of caring and caring as a concept, *Adv Nurs Sci* 13(1) 1-14.
- Munson, R.(translated by Park, S. K. et al.) (2001) *Intervention and Reflection*, Seoul: Dankook University press.
-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Nortvedt, P. (1996). Sensitive judgement: an inquiry into the foundations of nursing ethics, *Nursing Ethics*. 5(5), 385-392.
- Tong, R. (1998). The Ethics of Care: A Feminist Virtue Ethics of Care for Healthcare Practitioner", *J Med Philos* 23(2), 131-152.

-Abstract-

Key words : ethics of care, nursing ethics, feminine ethics, autonomy

A critical inquiry on the feminine ethics in nursing

*Kong, Byung Hye**

Purpose : This study was to illuminate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the feminine ethics of care when it applies to the nursing ethics, and suggested sufficient conditions of care ethics in nursing in order to actualize the autonomy for nurses.

Method : This study inqui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thical trait of caring in nursing and Gilligan & Noddings's moral theory as feminine ethics in relation to supporting the nursing ethics. In contrast to traditional moral theories based on universal principles, Gilligan's moral theory emphasized the conscious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the basis of the empathy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e other's need in contextual situations, and Noddings developed her ethics based on mothering as a model for the caring relation, the moral feature of which was characterized as reciprocity, receptiveness and responsiveness.

Result : The feminine ethics of care came to support nursing ethics considering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responsibility. However, it did not show a possible ideal of nursing ethics because it has some difficulties in actualizing the nurse's individual and professional autonomy in the health care system.

Conclusion : Therefore, in order that ethics of care can be an ideal and universal nursing ethics, it should be studied in proper direction, that is, toward actualization of the autonomy of the universal ethical self in relation to the concern and responsibility for the other.

*Full time instructor, department for nursing in medicine college, Chosun university